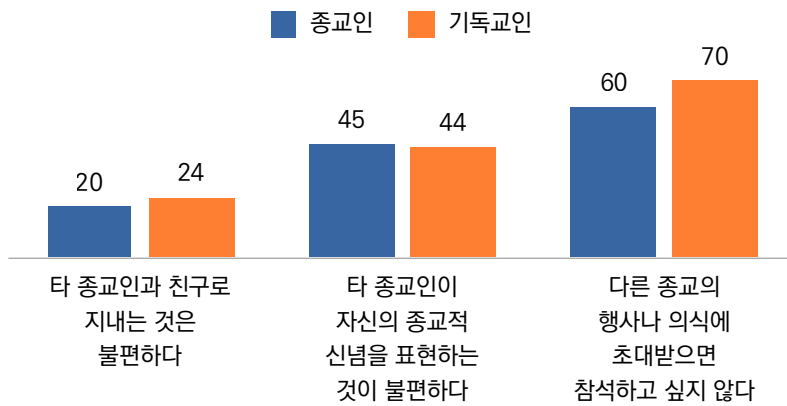




## [기독교인의 타 종교 인식] 기독교인, 타 종교인에 대해 다소 배타적

- 우리 국민의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을 조사한 결과(한국리서치)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. 먼저 종교가 있는 응답자에게 타 종교에 대한 수용성을 물어본 결과, 종교인 5명 중 1명(20%)은 '타 종교인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'고 응답했다. 또한 '타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'하거나 '다른 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'하는 경우는 불편하거나 참석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각각 45%, 60%로 나타났다. 전반적으로 다수의 종교인은 비교적 타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적지만 타 종교인의 종교적 신념을 접할 때 또는 타 종교 행사에 초대 받을 경우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- 기독교인의 경우 종교인 전체에 비해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타 종교에 대한 수용성(종교인, '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' 비율\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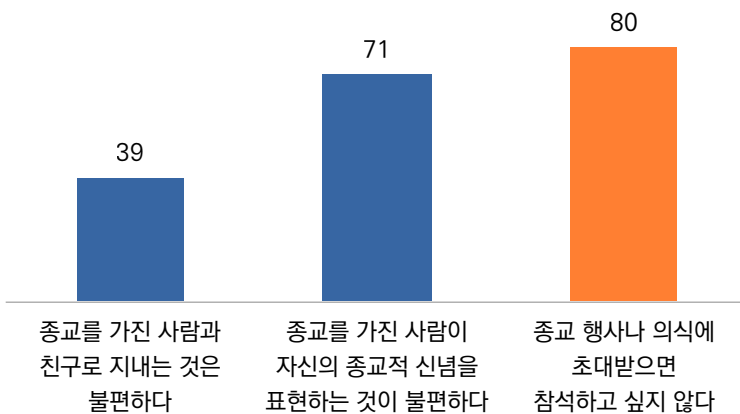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4 종교인식조사] 종교 간 갈등,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, 2025.02.05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1.22.~11.25.)

\*4점 척도

## 무종교인 10명 중 8명, 종교 행사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

- 이번에는 무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수용성을 살펴본다. 무종교인 10명 중 4명(39%)은 '종교를 가진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'에 동의했으며, 10명 중 8명(80%)은 '종교 행사나 의식에 초대받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다'에 동의했다. 전반적으로 무종교인이 종교인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종교인이 타 종교인에게 느끼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.

[그림] 종교에 대한 수용성(무종교인, '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' 비율\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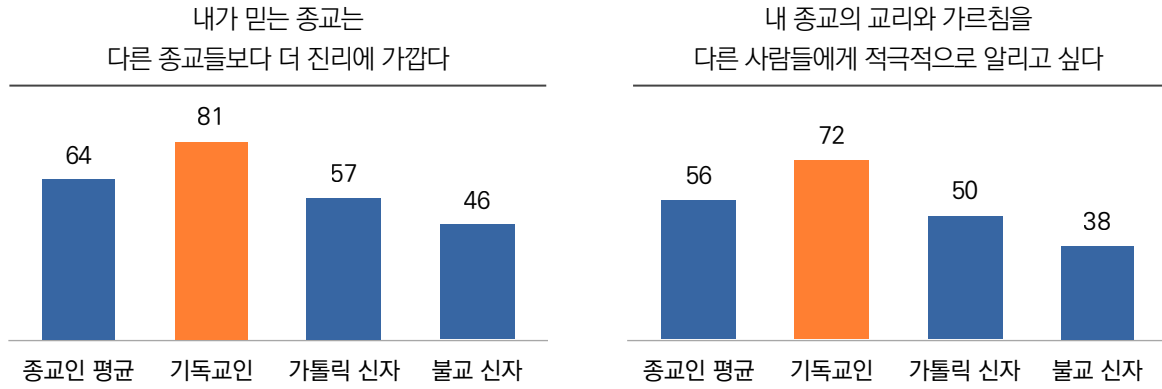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4 종교인식조사] 종교 간 갈등,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, 2025.02.05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1.22.~11.25.)

\*4점 척도

## ‘내가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진리’, 기독교인이 타종교인보다 크게 높아!

- 종교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? 종교인 중 64%는 ‘내가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’에 동의했으며, ‘내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’는 종교인은 56%로 나타났다.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기독교인이 가톨릭, 불교 신자보다 크게 높았다.

[그림] 종교적 신념과 전파 인식 (종교인, ‘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’ 비율\*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'[2024 종교인식조사] 종교 간 갈등, 다른 종교와의 공존 인식', 2025.02.05. 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4.11.22.~11.25.)

\*4점 척도